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제28권 5호 별지 (가해) 2008 · 1 · 1

[묵상]



해돋는 마을로

새해 새아침, 어둠을 찢고

일출이 홀리는 번쩍이는 징소리!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잇달아 징을 치는 빛의 징채!

어머니시여, 쟁쟁한 징소리가 들리는 이 아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당신께서 저희 집 대문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푸른 발자국 소리로 술렁입니다.

“세상의 어른들아,

예수 아기와 손잡고 맑은 눈으로 마주 보렴”

순수와 순결이 그리운 이 시대에

해 돋는 마음에서 붉게 떠오르는 당신의 말씀.

영혼의 새 아침을 여는 징소리에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때 묻은 어른 안에 잠들었던 아기가 깨어나

어머니 품에서 순결한 영혼의 모습으로 웅얼이하는 소리,

웅얼이하며 예수님과 마주하는 빛 어린 웃음소리,

‘말씀’의 젖을 물고 새롭게 자라서 잃어버린 진실,

팽개친 정의를 찾아 해 돋는 마을로 귀향하는 인기척 소리.

그러니, 오늘은 평화에 희망을 두어도 좋은 날이라고

일러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시여!

● 김길나 베로니카 · 시인

2008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사목지침

남가주의 모든 한인성당 신자들이 우리 백삼위 성당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당연 우리 성당이 4.4에이커의 넓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위에 마련된 아름다운 성전과 사제관, 유용하고 편리한 부속과 친교장 시설, 넓은 주차장, 축구장, 그리고 잘 정비된 조경을 보고 놀라워하며 부러워합니다. 단지 외적인 이런 환경들만이 부러움의 대상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지난 시절, 하느님께서 주신 집자가를 믿음과 인내로 열심히 지고, 신앙학교와 각종 신심행사를 통하여 자신을 변화시켜 거듭 태어난 우리 백삼위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성당은 그동안 530세대에 1,542명의 신자를 보유한 큰 규모의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주일미사 참례자 통계는 약 700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주일미사 참례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민생활에서 비롯되는 어려움과 사업상 잦은 출장과 한국 내왕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냉담하여 쉬는 교우들과 ‘주일 건너뛰기 신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백삼위 교우 여러분, 2008년 올해에는 빠짐없이 주일미사에 참례함으로써 주님께 올리는 전례를 통하여 축복받고 감사하며, 기쁘게 생활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주일미사 안에서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그리고 신앙학교를 통하여 내적으로 더욱 성숙한 백삼위 신앙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건설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2008년 주 · 일 · 오 · 십 · 백 · 천 · 만 운동

주 · 주일미사에 빠짐없이 참례한다.

일 · 하루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한다.

오 · 하루에 다섯 번 감사할 일을 찾아 적어 둔다.

십 · 하루에 열 번 크게 웃는다.

백 · 하루에 백 자 이상 성경을 필사한다.

천 · 하루에 천 자 이상 신심 서적을 읽는다.

만 · 하루에 되도록 만 보를 걸으며 묵주기도를 바친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백삼위 한인성당 교우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늘 가득하길 빕니다.

2008년 1월 1일 새해

오세원 아타나시오 본당 총회장

구 마리아네 본당 전교수녀

박상대 마르코 본당신부

2007년 12월 31일

송년 밤미사

한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 **입당송** : 인간이 무엇이기애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애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 **입당성가** : 전례성가 238

▶ **제1독서** : 시편 8,1-9

▶ **화답송** : ◎하늘은 춤추고 기뻐하며 땅은 즐거워하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온 세상이 주님께 노래 불러라.

그 이름을 찬미하여 높이기려라.

주님의 구원을 나날이 선포하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소리쳐라.

숲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주님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온 누리를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민족들을 성실하게 다스리시리라.◎

▶ **제2독서** : 요한1서 2,18-21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도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느

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도다.◎

▶ **복음** : 요한 1,1-18

▶ **2007년 백삼위 추억의 Review**

▶ **봉헌 성가** : 전례성가 268,256

▶ **영성체송** :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 **성체성가** : 전례성가 139

▶ **파전성가** (Auld Lang Syne - 개사)

1) 오랫동안 사귀어온 형-제- 자매여
송년이란 웬 말인가 보-내야 하는가.

한해동안 받은 은혜 잊을- 수 없어
변함없는 사랑위해 노-래를 부르자.

2) 오랫동안 정들어온 형-제- 자매여
지난시간 돌아보니 아-쉬움 가득해

믿음희망 사랑으로 다져진 백삼위
송구영신 새날위해 축-배를 들-자.

3) 주님안에 벗되어온 형-제- 자매여
미움반목 웬 말인가 다-떨어 버리자

어디간들 감사하는 백삼위 공동체
새해에도 주님은혜 가-득- 하리라.

2008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새해 첫날인 오늘은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을 낳으심을 경축하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천주의 성모'라는 명칭은 4세기경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자 성모 마리아께 붙여진 칭호로서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1970년부터 해마다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입당송** : 하례하나이다. 거룩하신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 **입당성가** : 전례성가 319

▶ **제1독서** : 민수기 6,22-27

▶ **화답송** : ◎하느님 우리를 어여뵈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전례성가 62,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하느님 우리를 어여뵈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당신의 도가 세상에 알려지고

만백성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정의로 못 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이 기뻐하라 춤추며 기뻐하라.◎

○하느님 당신을 높여 창생이 기리게 하소서.

만민이 당신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 만방이 당신을 두리게 하소서.◎

▶ **제2독서** : 갈라티아서 4,4-7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도다.◎

▶ **복음** : 루카 2,16-21

▶ **봉헌 성가** : 전례성가 269,270

▶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니시로다.

▶ **성체성가** : 전례성가 281,298

▶ **파전성가** : 전례성가 148

평화의 공동체인 인류 가족(요약)

새해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며, 평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간 친교의 첫 형태는 새로운 가정을 함께 꾸미고자 지속적으로 결합하기를 결심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인류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를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니(사도 17,26 참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민족의 기원은 하나이고, 그 궁극 목적도 단 하나 곧 하느님이십니다.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친교인 자연스러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위에 세워진 것으로 개인과 사회를 위한 '인간화'의 첫 자리이며 생명과 사랑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 생명의 토대 위에, 모든 사회 질서의 원형으로 하느님께 제정된 최초의 자연 사회라고 올바르게 정의되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건전한 가정생활에서 평화의 근본 요소들을 체험합니다. 여기에는 정의, 형제자매 간의 사랑, 부모가 수행하는 권위 있는 역할, 어린 나이나 질병 또는 노령으로 더 약한 구성원에 대한 사랑의 관심,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한 상호 지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며 필요한 경우 용서하려는 마음가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가정은 처음으로 평화를 가르치는 꼭 필요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특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사회적 첫째가는 핵심 세포"라고 할 때 이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은 그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류 공동체는 가정이 제공하는 봉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정은 그 구성원을 교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비록 개인의 권리로 행사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가정 안에 내재되어 거기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사회적 차원을 지닙니다. 가정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인간에 관한 진리를 흐리게 하여 평화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행여 모르고서라도, 가정 제도를 방해하는 이는 결국은 평화의 으뜸 일꾼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국가나 국제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훼손하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을 바탕으로 한 가정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 새로운 생명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자세에 직접, 간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모든 것, 자녀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책임질 가정의 권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명백한 장애가 됩니다. 가정을 이루려면 집이 있어야 하고, 직업과 부모의 가사 활동에 대한 정당한 인정, 자녀의 학교 교육 가능성,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시설이 요구됩니다. 사회와 공공 정책이 이러한 분야에서 가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평화의 주요 공급원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교육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기대와 권리를 명확히 나타내고 가정의 모든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가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정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가치들에서 영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뿐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국제 공동체 자체와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서 살아가는 인류 가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책임 있고 확신에 찬 "예"라는 대답으로 생겨나고 나중에는 자녀들의 지각 있는 "예"를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관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공동 인류 가족을 형성하도록 부름 받은 모든 이가 공동으로 가져야 하는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 본성에 새겨주신 이러한 소명에 대해 스스로 "예"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서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와 여자로서 따라서 형제자매로서 같은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원천으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최고의 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모든 인간의 무조건적인 가치를 인식하여 평화로운 인류 건설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월적 기초가 없으면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가족을 이루도록 부름 받은 형제자매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단순한 이웃들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가족은 올바른 관계를 길러갈 알맞은 환경인 집이 필요합니다. 인류 가족에게 이러한 집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창조의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지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돌보아야 합니다. 지구는 모든 이의 선의를 불변의 지침으로 삼는 책임 있는 자유를 통해 사람들이 보호하고 가꾸도록 인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확실히 인류는 전체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환경 존중이 물질적 자연이나 동물들의 자연을 인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이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완전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뒷면 계속)

2008년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문(계속)

미래 세대 역시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자연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내세우는 것과 똑같은 책임 있는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모두를 위해 마련된 창조의 재화들에서 많은 경우에 배제된 가난한 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인류는 미래의 생태학적 균형에 대한 올바른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향하는 하느님의 창조적 사랑을 반영해야 하는, 인류와 환경 사이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구 에너지 자원의 관리에 대한 조화로운 활동도 필요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본 조건은 모든 가정이 공유하는 영적 윤리적 가치들의 확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이들의 노동의 결실, 다른 이들의 저축, 그리고 모든 이의 적극적인 협력과 같은 가정 자산이 사치와 낭비 없이 연대의 정신으로 잘 관리될 때, 가정이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도 덧붙여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치라는 초월적인 자산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물질 재화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핵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확실한 전망 때문에 상호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은 인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계화의 결과로 더 통합되고 있는 인류 가족은 공동 가치들의 토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선에 대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경제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도 자연적인 가정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실하고 올바른 관계가 개인들 사이에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 증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모든 이가 공정하고 동등한 바탕 위에서 협력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원의 신중한 활용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은 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관료 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온갖 형태의 낭비를 피하면서 건전한 경제 논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 구조가 오로지 성급한 이익 추구의 냉정한 원칙만을 따라 비인간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덕적 의무에 마땅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 규범을 지킬 때 평화로운 가정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공동 규범은 이기적 개인주의를 피하고 개인들이 단결하게 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공존을 증진하고 그들의 활동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이 원리는 그 자체로 분명히 지역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 국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더 큰 공동체들에도 적용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공통된 법이 필요합니다. 이는 맹목적인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증진하고 강자의 억압에서 약자를 보호해 주는 법입니다. 인류 가족은 개별 국가들 안에서든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든 많은 독단적인 행태를 경험합니다. 약한 이들이 정의의 요구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강한 이들의 노골적인 위력 앞에 고개 숙여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힘은 언제나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이는 주권 국가들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운명에 대해 성찰하며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성향에 대한 내적 논리를 이해하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면 자연 도덕규범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문화적 차이를 뛰어 넘어 인간이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에 관하여 공통된 이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지적인 힘을 다 기울이고 실수나 오해가 있어도 낙담하지 않으면서 이 근본적인 법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단편적이고 늘 일관된 형태는 아니지만 자연법에 근거한 가치들은 국제 협약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권위의 형태로, 개별 국가의 법률이나 국제단체의 정관에 받아들인 인도주의법의 원리들 안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무법자'가 아닙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개별 국가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추진되도록 장려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법 문화의 성장은 국제 규범들 안에 인간을 위한 깊이 있는 내용을 구현하려는 꾸준한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 규범들이 이기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명분을 위해 쉽게 조작될 수 있는 단순한 절차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바르게 제정된 국제적 도덕규범은 국제적 갈등과 분쟁을 지혜롭게 조정하고, 나아가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군비축소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한 인류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더 생생한 인식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의 삶 속에 이러한 확신이 점점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참되고 항구한 평화 건설을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하느님께 평화의 위대한 선물을 끊임없이 간청하기를 신자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공동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전구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모두 기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바티칸에서 / 2007년 12월 8일 / 베네딕토 16세 교황